opusdei.org

청년 희년(7월28일-8월3일)을 준비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보내는 교황 레오 14세의 말씀 몇게 제시합니다.

청년 희년(2025년) 교황 레오 14세께서 전하신 말씀은 애정과 긴급성, 그리고 신뢰로 가득한 명확한 부르심입니다.

2025-7-23

청년 희년(2025년) 교황 레오 14세께서 전하신 말씀은 애정과 긴급성, 그리고 신뢰로 가득한 명확한 부르심입니다. 직접적이고 사목적인 어조로, 교황께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십니다: 성소적 민첩성, 희망의 공간으로서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사명에의 적극적 참여. 이는 교회가 수세기에 걸쳐 전해온 부르심의 확고하고 새로운 메아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말씀: 용기있는 응답의 부르심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부활 삼전기도 2025년 5월 11일)

이 말씀은 최근 교도권의 핵심 표현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를 되새기며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신뢰를 갖고 마음을 열도록 격려합니다. 교황께서는 쉬운 길을 제시하지는 않으시지만,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닌 길을 제시하십니다: 교회와 주님 자신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순응주의와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앙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부르고 계시며, 관대하고 용기 있으며 자유로운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 가까운 기대와 마리아의 전구.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한 달 후 청년 희년을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빕니다."

간결하지만 힘있게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청년들을 참여하도록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응답에서 큰 것을 기대하는 분의 직접적인 어조로 그들에 대한 친밀함과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희년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특히 분열과 폭력으로 가득한 세계적 상황에서 평화를 만드는 청년, 일치를 건설하는 청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초대는 이 희년의 시기에 만남을 허락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관중이 아닌 주역으로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 지체하지 말고 응답하라.

"특히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포도밭에서 일하도록 부르시는 주님께 열정적으로 응답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소매를 걷어붙이십시오. 주님은 관대하시고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포도밭에서 일하며,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반 알현, 2025년 6월 4일)

이것은 지금까지 레오 14세 교황의 가장 직접적인 성소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단순하고 역동적인 언어로, 교황께서는 현대 청년의 두 가지 큰 유혹을 무너뜨리십니다: 무한정한 기다림과 결정에 대한 두려움. "소매를 걷어붙이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거의 가정적인 표현으로, 손을 더럽히고, 관여하고, 수동성을 버리라고 초대합니다. 교황께서는 가장 내밀한 핵심을 건드리십니다: 의미 추구. 추상적인 답을 제공하지 않으시고, 실천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며 네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내일이 아닌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소는 단지 수도적이거나 사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관대함과 창의성, 믿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바쳐지는 삶입니다.

네 번째 말씀: 공동체 건설과 희망의 사명.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본당에서, 대교구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형제자매로서 공동체와 우정을 계속 건설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 "여기 모인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평화를 증진하며, 모든 민족들 사이의 조화를 촉진하는 이 사명을 -교회로서 그리고 사회에서- 함께

나누기 위해 여러분을 우리와 함께 원합니다."

(교황의 미국 시카고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여기서 교황께서는 두 가지 소중한 움직임을 보이십니다:

1. 공동체와 우정을 성덕의 장소로 다시 위치시키십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본당, 가정, 친구들이 복음을 살아갈 첫 번째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론상이 아닌, 교회와 인류의 마음 자체에서 희망의 전달자로서의 청년들의 역할을 인정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희망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명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이 된다는 것은 평화를 증진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일상적이고 세

계적인 것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ceongnyeon-hyinyeon-7weol28il-8weol3il-eul-junbihagi-wihae-ceongnyeondeulege-bonaeneun-gyohwang-reo-14seyi-malsseum-myeocge-jesihabnida/ (2025-11-27)